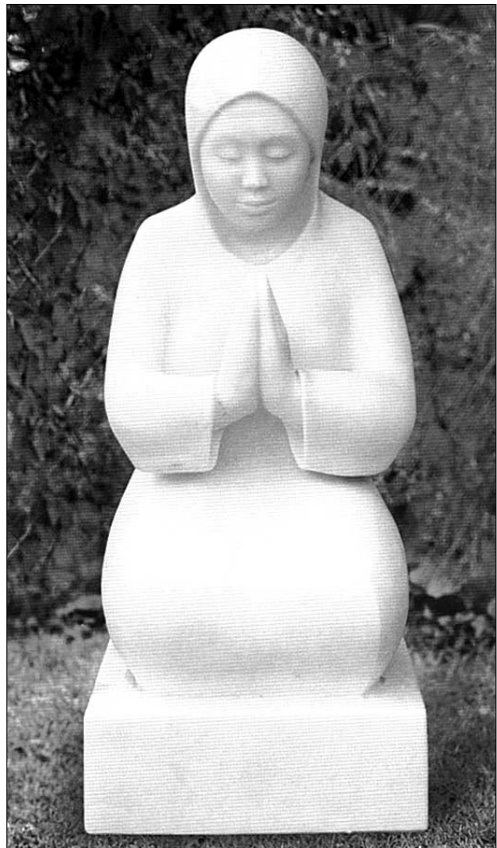


구도적 고행의 체취 '물씬' 전시회 2題

한기능 조각展 11월 2일까지 불일미술관서

11월 2일까지 불일미술관에서 열리는 조각가 한기능의 전시회는 10여년에 걸친 작가 자신의 지난 작업 역정을 한 자리에 모아 결산하는 자리다. 그래서 작품들을 마주대하면 그간의 변천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대리석과 브론즈를 사용한 작품 대부분이 몇 차례 죽



▷대리석으로 조각한 한기능씨의 '구도'.

음의 고비를 넘어서 작가의 구도적 고행에 대한 체취가 묻어났다.

전시 작품들은 한마디로 그것에 대한 증명이다. 전체적으로 그의 작품세계는 크게 셋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탈리아 대리석을 소재로 구도자의 상과 연화(蓮花)를 주제로 한 일련의 초기 작업들과, 브론즈를 통해 다소 추상화 되어간 '구도여행'(Seeking the Truth) 시리즈의 인도 시기, 그리고 지중해의 석양을 그렸던 근작의 회화작품들로 나뉘어 진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에서 발견되는 작가의 탁월함은 종교적 주제의 현대적 해석과 새로운 표현방식에 있다.

부처상에 치중해온 전통적 불상조각과 달리 한치의 작품은 선정(禪定)에 든 구도자의 모습을 정신적 깊이

선정에 든 수행자 모습 표현 불교미술의 새 가능성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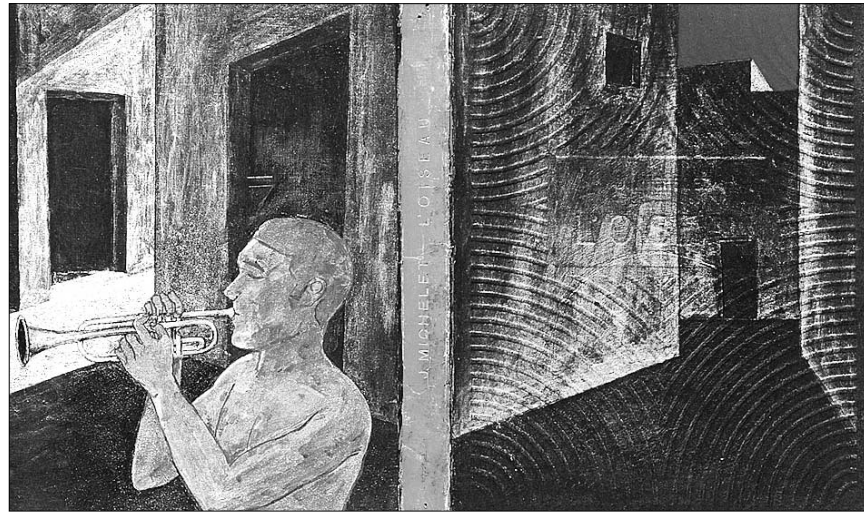
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불교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시회에서는 '염화미소', '자연속에서', '구도여행', '새가 되어' 등 50여 작품이 선보인다.

백영세 동명정보대 교수는 "작가 한기능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자신의 종교적 체험과 성찰에 의해서 주어지는 관념들과 내적 감정들을 작품형식 안에 구체화하고 표현하는 예술가"라며 "불교미술의 또 다른 장트를 제시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부산광역시청 전시실에서 '한기능 부산展'이 열린다. 서울 (02)733-5322, 부산 (051)888-4747

김주일 기자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오원배 화백의 '무제(無題)'.

소외된 인간에 자유의 날개

소외의 찬미展 오원배화백 회화전 시간동 금호미술관서

오원배 화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간을 그려 왔다. 오씨의 주제는 오래 전부터 변함이 없었는데, 작품 속에 등장하는 그 인간들은 세상의 삶으로부터 자의권 타의권 간에 밀려 소외된 자들이었다. 오씨의 소외에 대한 이런 운명적 집착은 종교적 영향과 결부된다. 불자인 오씨는 항상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에게 화폭에서나마 자비와 자유의 날개를 달아 주고 싶어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오원배 화백의 회화전 '소외의 찬미'가 11월 2일까지 서울 시간동 금호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도 역시 인간의 다양한 군상을 캔버스 위에 펼쳤다. 하지만 작품마다 제목이 없다. 감상하는 사람들로 스스로 느끼길 원하도록 배려하겠다는 작가의 의도때문이다. 다만 초기 작품들에서 보이는 털을 쓴 후죽근한 인간들, 싸구려 꽃들이나

그가 파리 유향 중에 그렸던 짐승 같은 인간들로부터 현재의 인물 군상에 이르기까지 '소외된 자들'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묶여 있다.

전시회에서 눈길을 끄는 작품은 웃을 걸치지 않은 사람들이 트럼펫이나 바이올린 등을 연주하는 모습이다. 고독하고 음울해 보이는 사람들이 악기를 통해 아름다운 음성공양을 세상에 펼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 활짝 핀 연꽃 등과 같이 오씨의 작품세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었던 신작들도

그가 파리 유향 중에 그렸던 짐승 같은 인간들로부터 현재의 인물 군상에 이르기까지 '소외된 자들'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묶여 있다.

전시회에서 눈길을 끄는 작품은 웃을 걸치지 않은 사람들이 트럼펫이나 바이올린 등을 연주하는 모습이다. 고독하고 음울해 보이는 사람들이 악기를 통해 아름다운 음성공양을 세상에 펼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 활짝 핀 연꽃 등과 같이 오씨의 작품세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었던 신작들도

그가 파리 유향 중에 그렸던 짐승 같은 인간들로부터 현재의 인물 군상에 이르기까지 '소외된 자들'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묶여 있다.

전시회에서 눈길을 끄는 작품은 웃을 걸치지 않은 사람들이 트럼펫이나 바이올린 등을 연주하는 모습이다. 고독하고 음울해 보이는 사람들이 악기를 통해 아름다운 음성공양을 세상에 펼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 활짝 핀 연꽃 등과 같이 오씨의 작품세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었던 신작들도

고독·음울해 보이는 사람들 악기로 아름다운 음성공양

선보인다.

미술평론가 최태만 교수는 "오원배 화백의 회화(畵)는 보는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여유로운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여백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02)720-5114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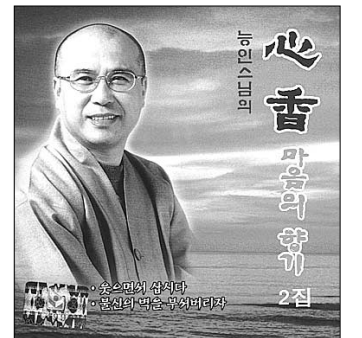
능인스님 찬불가요 2집 트로트풍 8곡 CD수록

찬불가를 트로트 풍으로 부르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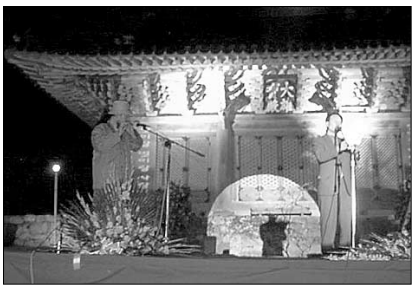
작곡가이자 가수인 능인 스님(서울 강동구 백운사 주지)의 두 번째 앨범 '심향(心香)-마음의 향기'가 새로 나왔다.

이번에 출시된 노래들은 불자들이 흥겹게 따라부를 수 있는 트로트 풍으로 작곡했다. 가사 내용도 모든 것은 마음에 담겨 있으므로 웃으면서 즐겁게 살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타이틀곡인 제 2집에는 '웃으며 삽시다'를 비롯해 '불신의 벽을 부서버리자', '십이인연', '나는 어리석은 중생', '그리운 어머니', '그 무엇이 나일런고' 등 총 8곡이 반주를 악과 함께 수록돼 있다.

능인 스님은 "중생들의 애잔한 정서를 대변하는 트로트로 찬불가를 만들면 부처님의 법음을 전함과 동시에 흥겹게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과감하게 시도 했다"며 "힘들고 무거운 삶에 지친 중생들에게 감로수와 같이 시원하고 유쾌한 음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18)202-1748 김주일 기자



문화소식



▷지나해 열렸던 미황사 개불재.

미황사, 개불탱화 이운식 작은 산사음악회도 열어

미황사는 11월 1일 오후 1시~8시 까지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개불재 및 산사음악회'를 봉행한다. 미황사 개불탱화(보물 제 1342호) 이운 및 봉안을 시작으로 아산작법, 수륙재

들이 펼쳐진다. 이어 오후 6시부터는 '달마랑 별이랑 사람이랑'을 주제로 '제 4회 작은 음악회'를 마련한다. 이날 공연에서는 박양희 씨의 '인도음악과 꼬두메 사람들', 정기열 씨의 '남도 소리', 한울림 합창단의 가을노래 등이 연주된다. (061)533-3521

보리방송 문화상 공모 11월10일까지 우편접수

보리방송문화상 운영위원회는 '제 11회 보리방송문화상'을 공모한다. 이번 문화상의 추천 대상은 2002년 11월 이후 제작된 불교 관련 프로그램으로 장르제한은 없다. 추천서, 작

품 개요서, 추천작 비디오테이프를 11월 10일까지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상 내역은 △일민 TV 부문-작품상, 대상, 우수상 △불교 TV 부문-개인상, 공로상 △BBS(불교방송) 부문, 개인상, 연출상, 진행상, 기획상 등이다. 입상작에 대한 발표는 11월 25일 이뤄지게 되며, 시상식은 12월 10일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02) 745-5811

대구불교방송 개국7돌 11월6일 축하음악회

대구불교방송은 오는 11월 6일 대구 인터뷰호텔 컨벤션홀에서 개국 7주년과 안동·포항중계소 개국을 기념하는 축하음악회를 연다. 이날 공연에는 영남불교오케스트

라의 반주로 소프라노 고선미 씨가 '그리운 금강산'을 노래한다. 또 김일수 대구예술대 교수나와 가을 분위기에 맞게 '고엽'과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을 연주한다. 이외에도 영남불교대 연합합창단의 찬불가 음성공양도 펼쳐진다. (053) 427-5114

광덕사 산사음악회 개최 11월1일 찬불가·타악 등

충북 광덕사는 11월 1일 오후 4시 극락보전 특설무대에서 '산사음악회'를 연다. 국립민속 국악원 사람들이 시작으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서는 불교계 중창단 LMB싱어즈



▷광덕사 산사음악회에서 김영임씨가 노래를 부르고있다.

가 출연해 '연꽃향기 누리 가득히', '향연' 등의 음성 공양을 선사한다. 이어 타악 연주자인 김대환 중앙대 교수가 타악연주를, 국악인 김성녀 중앙대 음대 교수가 찬불가를 연주한다. 광덕사 선행합창단도 찬조 출연해 '우리로 부처님 같이'와 '성불하십시오'를 들려준다. (041)421-4700

방송 프로그램

<p>BBS 불교방송</p> <p>06:00 뉴스</p> <p>08:55 우리들의 찬불가</p> <p>10:55 반야심경</p> <p>14:05 전국은 오늘</p> <p>20:05 다시 듣고 싶은 노래</p> <p>22:05 영화음악실</p>	<p>서울 FM 101.9 MHz</p> <p>부산 FM 89.9 MHz</p> <p>대구 FM 89.7 MHz</p> <p>대전 FM 94.5 MHz</p> <p>광주 FM 96.7 MHz</p> <p>충남 FM 100.1 MHz</p>	<p>Bn 불교tv <ch 32></p> <p>29일 09:10 목원 스님의 시와 사랑</p> <p>30일 12:00 향토음식기행</p> <p>31일 08:30 하재봉의 영화산책</p> <p>1일 08:30 성문대사 불경강좌</p> <p>2일 08:50 조선불교탄압사 부처 통곡하다</p> <p>3일 09:20 외국인 스님의 영어법문</p>
---	---	--

아이리ajt

- ▶**불교방송**
- ▷영화음악실(10월 30일, 22:05-23:00)=영화음악으로 영화를 만나보는 심야 프로그램. 목요일에는 영화음악 평론가 황혜림 씨와 함께 다양한 영화음악을 집중분석하는 '음악이 보이는 영화' 코너로 꾸며진다.
- ▶**불교텔레비전**
- ▷하재봉의 영화산책(10월 31일, 08:30-09:10)=영화평론가 하재봉 씨의 진행으로 불교교리와 상식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시간. 이번주 '영화 삼라만상' 순서에서는 <굿바이 레닌>을 불교적, 호의 관점으로 분석해 보았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마가목 가지로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구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다려서 (1달분 60봉, 보름분 30봉) 보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흡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동풍, 신경통, 관절염,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공팔) 율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여 속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경계가 됩니다. 즉, 인체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원종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향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자수 대진 합장

간(肝)이 건강엔...

간지방영양...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옹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미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담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미술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향이러에 넣고 원경 97마리를 덮은 뒤 원경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든데 원경거기 다 떨어지기까지 6박 8-9일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은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초전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신마를 토종 (민속농원)

명당민들이 주면 명당이 바뀝니다 명당목욕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불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세로운 운으로 바뀝니다.** **계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세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세로운 관운, 명에,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환기구 노력도 안되시면 집이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라 불행해 보십시오. **불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에,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신비의 황금보물 **명당목욕방 051)865-9933**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목욕방은 각 사찰, 암자, 칠학관에만 있습니다. **황금여리 목당여리 황금여리 목기막인 목이틀여리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